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Offshore Oil Resource in China

이충배(Choong-Bae Lee)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노진호(Jin-Ho Noh)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과 박사과정

목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 참고문헌 |
| III. 해외 석유자원 개발 현황 | ABSTRACT |
| IV.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

국문초록

제한된 석유자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제된 국내석유 생산으로 인해 중국은 1993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석유자원의 안정적인고 장기적인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 예를 들어 해외석유자원개발, 석유수입국의 다변화 등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고 2010년 기준으로 3조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해외 석유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해외석유자원개발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확보를 위해 석유 생산국에 차관 공여, 해외 석유개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석유탐사 및 생산업체의 인수합병 그리고 석유수입국의 지리적 다변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보다는 공격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주변 국가와의 갈등과 자원개발에 대한 비용 급증을 가져왔다. 이제 중국은 장기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석유개발, 중국석유 수요, 중국석유 공급, 석유무역, 해외 석유자원 개발

I. 서론

산업화 및 에너지원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석유에너지 자원은 현재 세계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 자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제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비록 21세기 들어 수소,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는 향후 수십년 또는 백여년 이상에 걸쳐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이후 석유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중국은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석유소비의 증가율을 나타내 2002년부터는 세계 2위 석유소비국인 일본을 따라잡았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7천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2020년에는 2억대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석유 생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증가의 상당 부분을 해외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는 1997년 23%이었으나, 2009년 53%로 급증하였고, 2015년 61%, 2030년에는 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은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다원화, 국내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산유국과의 정상외교 등 전통적인 외교수단과 해외투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자원 개발 정책은 중국이 가지는 엄청난 수요를 고려할 때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의 지정학적이고 지경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¹⁾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개발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기존 석유메이저 또는 국영석유회사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남미 또는 아프리카에서 자원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다(전가림, 2008²⁾; 박미정, 2008³⁾; 차창훈, 2008⁴⁾). 세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석유소비의 변화가 세계

1) John Wong & Chee Kong Wong, *China's New Oil Development Strategy Taking Shape*, East Asian Institute Contemporary China Series - Vol. 7, 1998.

2) 전가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외교 전략", 동서연구, 제20권 제2호, 2008, pp.113-147.

3) 박미정, "중국 석유에너지 수급정책", *China*연구, 제4권, 2008.

4)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 2호, 2008.9.

석유수급에 미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Cindy Hurst, 2006⁵⁾, Zweig & Jianhai, 2005⁶⁾; 이충배·이종철, 2009⁷⁾).

본 논문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현황 및 석유자원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안정적 석유확보를 위한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1. 세계 석유산업의 환경변화 및 현황

1) 세계 석유수요의 환경변화 및 현황

세계 석유수요는 2006년 기준으로 83.6백만b/d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112.5백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석유소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2030년 예상 석유소비량은 22백만b/d로 2006년의 21백만b/d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요는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의 경우 2030년 석유수요는 약 15.7백만b/d로 2006년의 6.7백만b/d에 비하여 약 13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석유소비의 9.5%를 차지하였지만, 2030년 16%로 2배 가까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에도 2030년 4.9백만b/d로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아시아지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의 석유수요는 향후 중국과 인도의 수요에 힘입어 2010년 이후 북미의 석유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안정적 석유공급과 석유의 효율적 이용, 역내 석유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5) Cindy Hurst, *China's Oil Rush in Africa*, The 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Global Security, 2006.

6) D Zweig and B Jianhai, "China's Global Hunt for Energy", *Foreign Affairs*, Vol.84, Iss.5, Sep/Oct 2005, pp.25-38.

7) 이충배·이종철, "중국의 석유소비가 한국의 동북아 석유물류허브 구축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9.

〈표 1〉 국별/대륙별 세계 석유소비 현황 및 전망(1990-2030)

(단위: 백만b/d)

국가/지역	실제치		전망			연평균증가율(%)
	1990	2006	2010	2020	2030	2010-2030
북미	20.5	25.2	25.3	26.7	28.0	0.5
- 미국	17.0	20.8	20.7	21.6	22.3	0.4
- 캐나다	1.7	2.3	2.4	2.5	2.6	0.4
- 멕시코	1.8	2.1	2.2	2.6	3.1	1.7
유럽	23.1	20.3	20.9	22.3	22.9	1.3
- 러시아	5.4	2.8	3.0	3.3	3.5	0.8
아시아	13.8	23.9	26.5	33.3	40.0	3.2
- 중국	2.3	6.7	8.8	11.7	15.7	2.9
- 일본	5.3	5.4	5.0	5.0	4.9	-0.1
- 한국	1.0	2.2	2.4	2.7	3.0	1.1
- 인도	1.2	2.4	2.7	3.8	4.9	3.0
중동	3.5	5.9	6.8	8.2	9.5	1.7
아프리카	2.1	2.9	3.4	4.0	4.3	1.2
중남미	3.8	5.5	6.3	7.0	7.8	1.1
전세계	66.6	83.6	89.2	101.3	112.5	1.2
아시아/전세계(%)	20.7	28.6	29.7	32.9	35.6	
북미/전세계(%)	30.8	30.1	28.4	26.4	24.9	
유럽/전세계(%)	34.7	24.3	23.4	22.0	20.4	

자료: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8.

2) 세계 석유공급의 환경변화 및 현황

석유에 대한 각국의 수요량 증가는 석유에 대한 국가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자원의 한계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불균형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요 소비국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 비해 세계 석유 매장량의 65%는 중동지역에 집중되어있고, 사우디아라비아 21.3%, 이란 11.2%, 이라크 9.3%, 아랍에미레이트 7.9%, 쿠웨이트 8.2% 순이며,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중국은 각각 2.4%, 1.3% 밖에 되지 않는

다.8)

세계 석유생산에 대한 EIA의 국별/대륙별 장기 전망은 <표 2>와 같다. OPEC의 석유생산은 2010년 37.4백만b/d에서 2030년 약 49.3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 OPEC의 석유생산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3%에서 2030년 44%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OPEC국가들 중에서도 중동 OPEC국가들의 생산이 현재 전 세계 석유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도 현재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유공급원으로서 중동국가들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OPEC의 산유량은 2030년에 약 63.2백만 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비OPEC 국가 중에서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의 석유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석유공급에 대한 중동 의존도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석유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석유수급 불균형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의 안정적 확보 및 중동지역 이외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는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9)

<표 2> 국별/대륙별 세계 석유생산 추이 및 전망 (1990~2030)

(단위: 백만b/d)

지역/국가	실제치		전망치			연평균증가율 (2010-2030)
	1990	2006	2010	2020	2030	
북미	14.7	15.2	16.2	17.2	18	0.5
- 미국	9.7	8.2	9.4	10.2	9.8	0.2
- 캐나다	2	3.3	3.8	4.6	5.3	1.7
- 멕시코	3	3.7	3	2.4	2.8	-0.3
유럽	16.1	17.8	18.5	20.3	22.3	0.1
- 러시아	10.1	9.7	10.2	12.1	13.5	1.4
- 카스피지역	1.1	2.3	3.5	4.5	5.1	1.9
아시아	5.2	7.2	7.7	8.2	8.6	1.1
- 중국	2.8	3.8	3.8	4	4.1	0.4
- 일본	0.1	0.1	0.1	0.2	0.2	3.5

8) Amy Myers Jaffe, "Global Oil Geopolitics post-September 11; Changing Landscapes", Prepared for Japan Cooperation for the Middle East, October 2002, pp.2-4.

9) 한국석유공사,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2008. 12, pp.9-14.

지역/국가	실제치		전망치			연평균증가율 (2010-2030)
	1990	2006	2010	2020	2030	
- 한국	0	0	0	0	0.1	
- 인도	0.7	0.8	1.1	1.2	1.3	0.8
아시아 (인도네시아)	1.5	1.1	0.9	0.9	1	0.5
중동	16.1	23.6	23.7	28.8	31.8	1.5
북아프리카	2.7	3.9	4.7	5.1	5.8	1.1
서아프리카	2.3	3.9	5.1	5.9	6.7	1.4
OPEC	25.2	35.8	37.4	44.4	49.3	1.4
비 OPEC	41.1	48.4	51.8	57	63.2	1
비 OPEC 중동	1.3	1.6	1.5	1.5	1.6	0.3
아프리카	1.7	2.6	3	3.7	4.5	2
중남미	2.1	3.9	4.9	6	8.2	2.6
전세계	66.3	84.2	89.2	101.3	112.5	1.2
OPEC/세계(%)	38.0	42.5	41.9	43.8	43.8	
아시아/세계(%)	7.8	8.6	8.6	8.1	7.6	
유럽/세계(%)	24.3	21.1	20.7	20.0	19.8	
북미/세계(%)	22.2	18.1	18.2	17.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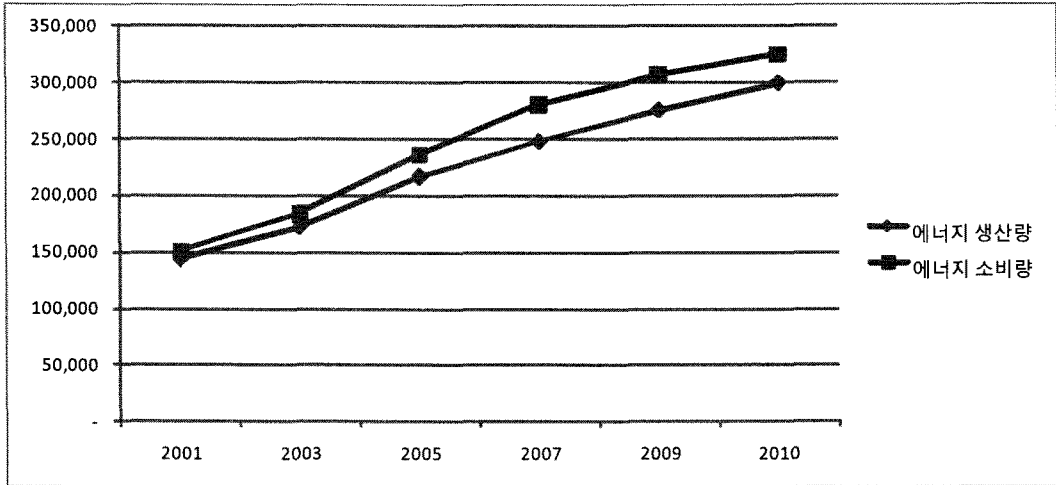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8.

3)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1) 총에너지 수급 현황

중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 수입을 해야 하는 구조로 생산량은 2001년 143,875만톤 SCE(Standard Coal Consumption for Power Generation Coal) 대비 2010년 299,000만톤 SCE로 207.8% 증가하였고, 소비량은 2001년 150,406만톤 SCE 대비 2010년 325,000만톤 SCE로 216%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생산량과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각각 8.3%, 8.4% 증가하였다.

(단위: 만톤 SCE)



주: SCE(Standard Coal Consumption for Power Generation Coal, 표준석탄)

자료: 중국통계국, 2010 중국통계년감, 2011.

[그림 1]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최근 10년간 에너지 총생산 및 총소비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종류별 비중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석탄의존도가 70% 이상으로 절대적인 수준이다. 나머지 에너지 종류 중에는 원유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천연가스 및 기타(수력, 풍력,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소비 증가와 지속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투자의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석탄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소비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고, 석유 생산은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는 미미하게 줄어든 수준이다. 즉, 석유에너지는 향후 수십 년 혹은 100여년 이상 중요한 핵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될 상황에 비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석유 확보가 필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 석유수급 추이 변화 및 수입의존도 전망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소비 환경과 수급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석유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석유공급원의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가지게 되었다. 중국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이기 때문에 석유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의존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원유 수입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5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는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은 크게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핵심 소비에너지원의 변화이다. 198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이 사회 진보의 선결 조건이라는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이념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국민 대다수의 생활은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핵심 소비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대체되고 있다.

<표 3>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간별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5.4%였으나, 1990년대에는 3.8%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이러한 둔화의 주요 원인은 석탄 소비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

1980년대에 6.0%의 증가율을 보였던 석탄 소비가 1990년대에 들어 2.6%의 연평균 증가율로 둔화되었다. 반면에, 석유의 소비 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1980년대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연평균 3.2%를 보였던 석유 소비는 1990년대 들어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2008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탄 70.3%, 석유 18.3%, 천연가스 3.7%, 기타 7.7%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에너지원별 소비 증가율

(단위: %)

연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총계
1980-1989	6.0	3.2	0.6	8.2	5.4
1990-1998	2.6	7.1	5.4	7.3	3.8

자료: LBNL, China Energy Databook, 2001.

두 번째 단계는 석유 수요의 증가에 따른 석유 확보 전략의 시작이다. 중국 정부는 먼저 국내에 매장된 자체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해상유전 탐사·개발의 대외개방을 실시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육상광구의 탐사·개발, 1990년대 중반부터 증진회수(EOR: Enhanced Oil Recovery) 대상 유전으로의 개방 확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국내 석유 생산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완만한 증가세 및 정체 상태를 보임으로써,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반면 석유수요는 산업발전과 개인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2년부터 미국

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석유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외진출이다.¹⁰⁾ 늘어나는 석유수요를 국내 생산과 수입으로는 충당하지 못해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해 직접 해외진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1992년에 해외진출의 서막을 열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3대 국영석유기업인 CNPC,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이들 기업들은 석유탐사 및 개발(E&P: Exploration and Production)에 9% 이상을 투자하였다 (Cindy Hurst, 2006, p.5). 제10차 5개년계획에 제시된 중국의 해외자주원유 개발전략에 따르면, 향후 해외자원이용의 기본방침은 평등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산유국과 협력하며, 석유천연가스의 탐사개발 분야에 진출해 석유천연가수에 관련된 공사용역을 포함한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안정적인 해외 석유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석유 안정공급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중국은 먼저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인근 지역의 개도국 진출을 바탕으로 한 경험 축적으로 타지역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전략은 확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2010년 원유 생산량은 최초로 2억톤을 초과하여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하였다. 하지만 동년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4.49억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수요 초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1997년 23%에서 2007년 52%, 2010년 57%에 이르렀으며, 2020년 66%, 2030년 74%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입 의존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석유에너지 공급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표 4〉 중국의 석유수급 추이 및 수입의존도 전망

(단위 : 백만b/d)

구분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소비(A)	4.2	4.8	7.9	8.8	11.7	15.7
생산(B)	3.2	3.3	3.7	3.8	4.0	4.1
A-B	1.0	1.5	4.1	5.0	7.7	11.6
수입의존도	23.2	31.9	52.3	56.8	65.8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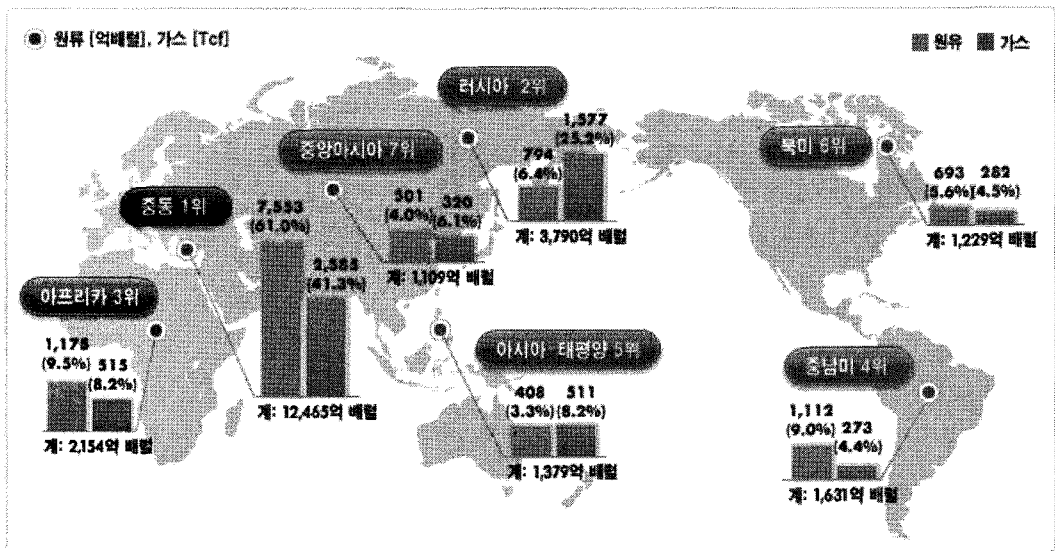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8.

10) 이은명, “중국의 원유확보전략이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pp.83-84.

Ⅲ. 해외 석유자원 개발 현황

1. 주요국의 석유자원개발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석유,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국제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자원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할 것도 없이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info/resource/resource_05.jsp

[그림 3] 세계 원유, 가스 매장량 대륙별 분포도

전세계 석유자원개발은 생산국이자 거대소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아시아의 경제 대국인 일본, 호주 등이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신흥자원소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 등이 해외자원개발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해외 석유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엑슨모빌(ExxonMobile), 셰브론(Chevron), 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 등의 민간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해외석유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와 외교분야와 군사적 지원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미국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¹¹⁾를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영국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British Petroleum) 및 로얄더치셸(Royal Dutch Shell) 등 세계 최대규모의 메이저 회사들이 자체적인 자금, 정보, 기술력을 통하여 해외 석유자원 확보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안보 및 외교적 차원에서만 이들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BP는 29개국에서 해외 석유 채굴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멕시코만 심해유전과 트리니다드, 앙골라, 아제르바이잔, 알래스카, 북해, 북미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석유자원개발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수립한 신 국가에너지전략¹²⁾을 통하여 2030년까지 석유 및 가스가 일본의 제1 에너지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중동지역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편중된 석유와 가스의 수입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석유자원보유국에 대한 재정, 금융, 기술지원과 함께 일본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Inpex Corporation)와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해외석유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먼저 Inpex는 전세계 24개국에서 72개의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¹³⁾ 그리고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이토추(伊藤忠), 스미토모(住友), 마루베니(丸紅) 등의 민간 종합상사들은 정보력과 해외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200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유자원의 자급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영회사인 한국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외 유전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석유 자주개발율이 4.2%에 불과하였으나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유전 광구를 확보함으로써 2010년 10.8% 그리고 2012년에는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국의 석유자원개발 현황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에너지부문중에서도 석유에너지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세계 총 소비량 중 차지하는

11)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미국은 2008년기준 260억 800만달러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였다.

12) 2006년 5월, 일본의 자원에너지청에서 수립된 신 국가에너지전략은 원유가격의 상승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과제에 대응한 에너지 안전보장 강화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3) 한국석유공사, “주요 독립계 석유회사의 투자 동향 및 전략”,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2007, p.136.

비율은 2008년 기준 9.5%까지 증가하여 향후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조 8500억달러(2010년말 기준)의 풍부한 외화 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 석유자원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의 3대 국영 석유회사인 CNPC, Sinopec, CNOOC가 중심이 되어 석유자원 인수 및 개발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해외 석유자원의 투자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1993년 3월 CNPC가 태국의 바나지역 프로젝트에 선정됨으로써 처음으로 해외유전개발권을 취득하였고, 동년 10월에 페루 타라라 유전 제7지역의 석유채굴권을 취득하면서 중국의 해외석유자원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0년대 중반 CNPC는 수단의 무그라드 바신 유전개발에 선정되었는데, 무그라드 바신유전은 연간 원유생산능력이 1,400만톤에 달하는 지역으로 연간 원유가공량은 250만톤에 달하였다.

1997년 5월에는 카자흐스탄 악튜빈스크(Aktyubinsk)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2002년에 CNOOC는 12억 달러를 투자하여 오스트리아와 인도네시아 등 3곳의 석유천연가스 유전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이 지역에서 연간 550만톤에 달하는 석유를 채굴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Sinopec은 독일회사인 프로이삭(Preussag)과 예멘 S2지역의 개발탐사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37.5%의 석유채굴권을 취득하였고, 알제리 노후유전의 개조 및 개발권을 취득하였다. 2003년에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의 석유회사와 함께 피사기(Pirshagi)유전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에는 이란과 2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계약을 체결하고, 이란과 공동으로 서남부의 다와란 유전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1990년대 초기 해외석유개발은 합작개발 및 생산량공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 지분참여방식과 매입의 형식으로 해외석유자원개발에 참여하였다. 중국은 석유개발구역을 점차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남미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전략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을 중심으로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 주변국가로 개발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동은 이란, 예멘을 중심으로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가로 확대하고 있다. 남미는 칠레, 베네수엘라를 기점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로 개발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표 5〉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의 해외투자(1995-2006)

(단위 : 백만 달러)

국영기업	총계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시아	아메리카
CNPC	15,440	2,599	795	9,159	810	2,077
Sinopec	8,356	3,101	464	4,220	21	550
CNOOC	3,281	2,289	0	0	972	122
총계	27,178	7,989	1,259	13,379	1,803	2,749

자료: Chatham House Report, "Trend in Asian National Oil Company Investment Abroad", March 2007.

IV.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석유에너지 자원 개발 전략

현재 중국 외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에너지이다.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인 중국은 에너지 문제가 국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산업화에 중추적인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야 말로 향후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석유자원의 초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석유자원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서 '국가석유전략비축기지 건설' 계획을 명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전략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전략 비축용 원유 구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석유비축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 석유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정책 및 수입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원을 지리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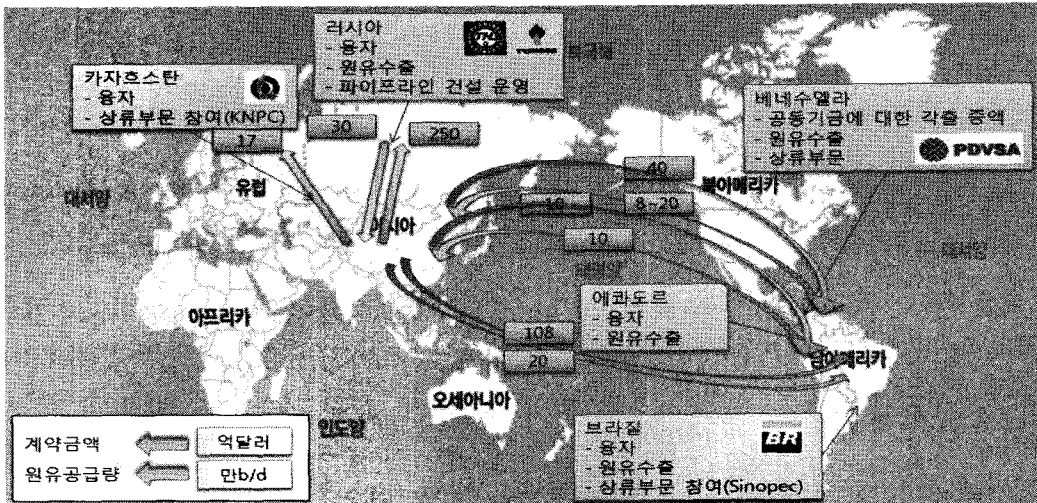
1) 외교정책 및 수입의 다각화

중국의 석유 생산 대비 소비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여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석유의 안정공급 확보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거액의 공적자금을 산유국에 융자하는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산유국에 대하여 상당액의 자금지원을 실시해왔다. 이른바 원유담보 차관(Oil back Loan)을 통해 장기 원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조를 통한 원유 공급원 확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로 2004년 앙골라에 20억 달러의 저리 차관을 제공과 이후 추가 차관을 지원하는 대가로 약 40만 b/d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53개국에 차관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공여해 왔다(Cindy Hurst, 2006).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아프리카로부터 석유수입 비중은 1995년 11%에서 2007년에는 26%로 증가하였다(Comtrade, 2008).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주요 산유국들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자금지원 협정 및 원유 장기 도입 계약, 상류 개발사업(공동자산인수 포함)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Loan for Oil(오일차관 전략)'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는 2005년 러시아에 대한 차관경험에서는 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송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원유도입 교섭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어, 금융위기 이후의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은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JOGME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림 4]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Loan for Oil 전략추진 분포

〈표 6〉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Loan for Oil 전략추진 상황

산유국	합의시기	용자계약, 용자선, 용자액	장기공급계약	기타
베네수엘라	2009년 2월	국가개발은행 중국-베네수엘라 '공동투자기금' 확대 (40억→80억달러)	장기 원유도입계약 베네수엘라: PDVSA 중국: CNPC 수량: 8만~20만 b/d	CNPC, PDVSA와 공동으로 중질유개발, 5개의 성숙유전 매장량 평가 등에 합의
브라질	2009년 2월 기본협정 합의 후 3월 최종합의	국가개발은행 Petrobras: 100억 달러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8억달러 총 용자액: 108억달러	장기 원유도입계약 브라질: Petrobras 중국: Sinopec(2009년: 15만 b/d, 2010~19년: 20만 b/d)	사진핑 국가부주석 방문시합의 Sinopec는 Petrobras와 브라질 해상의 2개 탐사광구 광권부여에 대해 교섭 중
러시아	2009년 2월 기본협정 합의 후 5월 최종합의	국가개발은행 Rosneft: 150억달러 Transneft: 100억달러 총 용자액: 250억달러	장기 원유도입계약 러시아: Rosneft 중국: CNPC (2011~30년: 30만 b/d)	CNPC는 Transneft와 태평양 송유관 중국(대경)지선 건설, 운영에 합의
카자흐스탄	2009년 4월	중국수출은행 용자: 17억달러	공동자산인수 카자흐스탄: Kazmunaigaz 중국: CNPC(CNPC에 Kazmunaigaz 33억달러 지분, Mangistaumunaigas의 소유권 49%를 취득)	-
에콰도르	2009년 7월	국가개발은행 용자: 10억달러	원유구입계약 (2년간 10만 b/d)	-

자료: JOGME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석유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중국과 자원부국간에는 상호간 필요에 의한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외환 보유국으로서 석유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한 석유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국가들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차관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연계시켜 주고 있는 방식인, 석유공급 조건 차관(Loan for Oil)을 들 수 있다.

에콰도르와 러시아 등 산유국 정부, 또는 국영석유회사는 이러한 차관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받고 디폴트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고, Petrobras사와 같이 거액의 유전개발투자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산유국 정부는 자국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공적지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또한 Loan for Oil 전략을 통해 중국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원유 수입의 다각화이다. 중국

은 수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이 해상수송이다. 이 과정에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게 되는데, 말라카 해협 한 가지 경로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운송 가능한 육로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¹⁴⁾¹⁵⁾

2011년 1월에 4700km 길이의 러시아의 태평양 송유관(ESPO) 가동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년간 1,500만 톤의 원유를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03년 3월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Atyrau-Kenkyak간 송유관 450km(1.6억달러)가 완공되었고, 2005년 12월 Atasu-Alashenko 간 986km 2차 송유관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연 10백만 톤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20백만 톤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CNPC는 각국의 기업과 합작하여 파이프라인건설에 관여해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IEA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원유수입량은 약 570만 b/d로 늘어날 전망이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육로 등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수입량이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2014년 수입 원유기준 92%(약 72만 t/d, VLCC 3척 이하)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송유관과 철도를 통해 대략 100만b/d의 수입이 예상돼, 수입의 20% 정도를 육로를 통해 수입함으로써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국영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해외진출은 탐사, 시추, 운송, 가공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본국이 담당하게 되면서 국제 석유 무역 중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원유 발굴설비의 수출과 취업기회도 창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진출은 원유의 자급률을 높이고 국내에서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⁶⁾

중국은 안정된 석유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석유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3대 국영석유기업인 CNPC, Sinopec, CNOOC에 의해 정부의 Loan for Oil 전략과는 별도로 자산인수와 입찰참여 등의 해외 석유자원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크게 인수, 유전채굴권 및 지분 확보, 해외 기업과의 합작 방식의 전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4) 이준범·장지호,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본 동북아 석유수송로의 지정학적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005.9.

15) 오경택,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1호, 2006, pp.164-165.

16) 박기철, “후진타오체제하의 중국 석유외교정책의 실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학 연구』, 제 51집, 2010, p.235.

(1) 해외기업 인수

파이낸셜타임즈가 선정한 2010년 500대기업 순위에서 미국 엑손모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1위로 부상한 CNPC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세계 30여개국 유전을 급진적으로 인수하였다. 2005년 카자흐스탄 3위 석유기업으로 5억 5000만 배럴의 유전을 보유한 페트로 카자흐스탄을 4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당시 오일메이저들은 적정인수 가격을 25억 달러로 평가했지만 중국은 정치논리를 적용하였고, 성공적인 인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07년 초 한국이 7억 달러에 포기한 카라잔바스 유전을 역시 정치논리를 앞세워 19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Sinopec은 2006년 러시아 TNK-BP의 자회사 우드머트네프트(하루 평균 11만 5천배럴의 원유 생산)를 인수함으로써 러시아에서 사상 처음 석유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2009년 6월에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이권을 가진 Addax사를 88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회사가 해외자산인수에서 성공한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2009년 2/4분기 기준 석유상류부문 M&A 중, Sinopec과 CNPC의 인수총액의 무려 43%에 해당한다.

CNOOC는 CNPC에 비해 매장량과 생산량이 열세이며 Sinopec과 같은 정제·판매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하류 사업에 대한 다각화 전략과 동아프리카 등 프론티어 지역으로의 해외 자산인수를 통해 기업규모 확대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다. 2007년 7월 CNOOC 산하의 유전서비스회사 중해유전공사(COSL: China Oilfield Services Ltd.)는 노르웨이의 해양시추회사 Awilco Offshore(AWO)의 지분 전량을 25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2008년 7월에 완료되었다. 또한 CNOOC는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COSL의 AWO 인수로 인해 CNOOC의 향후 해외 진출 전략에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2) 해외 유전 채굴권 및 지분 확보

CNPC는 2008년 9월 Royal Dutch Shell, Exxon Mobile, Chevron, Total 등 메이저들을 제치고 이라크 아다브(Ahdab) 유전의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총 프로젝트 금액이 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으로 2011년 후부터 20년간 1일 110,000배럴의 석유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계약에서 CNPC는 이라크의 Northern Oil Company와의 JV지분 중 75%를 보유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 6월에 영국 BP사와 공동으로 이라크 루마일라 유전 개발권을 낙찰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이권취득에 합의하였다. 동년 9월에는 이란 국영석유공사(NIOC)와 이란 최대 유전으로 매장량이 420억 배럴에 달하는 남부 아자데간 유전개발의 70% 지분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Sinopec은 2002년 10월 알제리 석유프로젝트에 약 1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말 이란 남서부의 야다바란 유전(매장량 183억 1배럴)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생산량의 15%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3) 해외기업과의 합작

CNPC는 2006년 10월 동시베리아의 석유탐사개발을 목적으로 CNPC와 러시아 Rosneft가 합작하여 Vostok Energy를 설립하였고, 2007년 7월 31일 광구입찰에 의해 동시베리아 유·가스 광구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였다.

Sinopec은 중국 수출입은행 및 5개 중국은행, 국제금융기간과의 최초 공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4억 달러를 지원받아 러시아 로즈네프트와 합작하여 앙골라 해저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할린-3 베닌스키 블록을 이미 탐사 시추 중이다.

이상의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전략과 3대 석유국영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에너지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상호협력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자국의 국영석유기업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영석유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해외사업 진출에 있어서 정부의 석유 공급국 및 경유 국가와의 정치적 외교관계 수립이 해당 기업의 사업 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활동 전체가 중국 정부의 관리 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리적 확대

제10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중국의 해외자주원유 개발 전략에 따르면 해외 석유에너지 개발 시작은 중앙아시아, 러시아 및 인근지역의 개도국에 진출한 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즉, 리스크의 감소·분산, 투자의 안전 확보, 최대한의 투자효과와 수익실현이라는 원칙하에 해외 진출 지역을 물색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미 석유에너지 개발의 지역적인 확대는 이루어졌고, 50%가 넘는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타 지역에서의 개발 확대를 통한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대중동 원유수입 의존도는 2003년 약 50%, 2006년 41.8%까지 하락했으며, 반면 아프리카산 원유 의존도는 2003년 약 25%에서 2006년 30%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송유관 건설로 인해 석유 의존비중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2006년 7월 25일 중국-카자흐스탄 간 송유관을 개설했으

며, 연간수송량이 초기 1천만톤이었으나 현재 약 2천만톤으로 늘어났다. 중국-러시아 송유관은 2008년에 착공되었으며, 연간 3천만톤의 러시아산 석유가 중국에 공급될 계획이다. 중국-미얀마 송유관은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2013년 완공 예정이며, 연간 2천만톤의 석유가 중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2. 정책적 시사점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석유소비 증가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이 석유확보를 위해 가장 다양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외교정책 및 수입 다각화 전략, 국영 메이저 석유기업인 CNPC, Sinopec, CNOOC 주도에 의한 해외석유자원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전략은 국영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진출 전략은 석유자원의 매장량 분포에 따라 중동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0%가 넘는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타 지역에서의 개발 확대를 통한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 중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 등 주변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기존에 편중되었던 해상수송로에서 벗어나 육상 수송로를 확보하면서 수송경로의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 원유개발 업체와의 합병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유전확보를 위한 시추 및 생산권 획득 이외에도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의 원조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자원인 석유의 안정적인 확보는 중국의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속적 경제성장은 중국공산당을 위한 중국 사회안정에 토대(cornerstone)이 되기 때문이다(Zweig & Jianhai, 2005, pp.25-26). 그러므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은 정치·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석유관련 기업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연계되어 자원 확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유자원 개발에는 대규모 자원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석유 국영기업을 내세워 비록 단기적으로 또는 경제성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도 정치적인 논리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석유자원에 적극적으로 투

자하고 있다. 또한 정치·외교력을 동원하여 후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차관공여와 연계하여 석유자원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석유자원개발에 대한 포식이 막대한 자금과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 석유자원의 개발권은 여전히 서구의 석유메이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국적 석유기업의 상위 20개사가 세계 81%의 탐사 종료된 우량석유자원의 채광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후발 해외진출 국가로서 서구의 선진국들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국이 확보할 수 있는 유전은 주로 ‘고위험 또는 전쟁지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의 신개발지역’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중국 정부의 석유자원개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원유생산과 소비, 석유메이저의 기업전략, 국영석유기업의 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향후 엄청난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에너지 자원의 블랙홀로 전세계 영역에서 자원쟁탈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자원 개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서구의 메이저 석유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석유개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석유자원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대국이지만 석유 탐사·생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영향력이 미비하다. 게다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투자 비중이나 결과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 해외 석유자원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데 중국의 변수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자원개발에 보다 강력한 정책과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상류부문인 유전개발사업과 중류부문인 정제 및 석유화학 사업과 아울러 하류부문인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 등 3부문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석유 가치사슬(Value Chain)의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와 자원개발기업, 자원실수요기업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석유개발에 경쟁력을 보유 못한 한국의 입장로서는 이미 석유메이저들이 진출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지역에서는 지분참여를 통한 진출이 필요하며, 원유 매장량은 많지만 경쟁강도가 약한 이란,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시베리아 등의 지역에서는 사업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현재 중국은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Loan for Oil' 전략을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주요 산유국들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오일 확보를 조건으로 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국영기업에 의한 해외진출 방식은 해외개발사업, 유전 지분 인수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업의 인수 합병(M&A), 해외 유전 채굴권 및 지분 확보, 해외기업과의 합작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공급원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지리적으로 확대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리스크의 감소·분산, 투자의 안전 확보, 최대한의 투자효과와 수익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중국의 석유자원 확보가 국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자원 개발의 후발주자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의 석유확보를 위한 전략은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경제성에 대한 의문과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즉 중국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석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메이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석유개발의 장(arena)에 뛰어들어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보다는 공격적인 추진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석유개발 시장의 혼란과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갈등과 경쟁보다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석유자원은 한정된 자원일 뿐만 아니라 공유되고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한정된 석유자원을 대체할 에너지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석유자원 확보 전략은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자원빈국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석유 수요에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새로운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호 · 허봉, 한·중 FTA 정책적 전략과 추진방안, 경영경제연구, 제30집 제2호, 조선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2007.
- 김기중, “자원개발 동반진출 및 투자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김병준, “해외자원 확보경쟁-해외자원개발성과 및 향후대책”, 정책기획위원회, 2008.
- 박기철, “후진타오체제하의 중국 석유의교정책의 실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학 연구」, 제51집, 2010.
- 박미정, “중국 석유에너지 수급정책”, China연구, 제4권, 2008.
- 양령령, “중국의 대 아프리카 자원개발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오경택,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1호, 2006.
- 이은명, “중국의 원유확보전략이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 이준범 · 장지호,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본 동북아 석유수송로의 지정학적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005.9.
- 이충배 · 이종철, “중국의 석유소비가 한국의 동북아 석유물류허브 구축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9.
- 전가림, “중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외교 전략”, 동서연구, 제20권 제2호, 2008.
- 차창훈, “중국의 에너지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적 함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8집2호, 2008.
- 한국석유공사,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2008.
- 한국석유공사, “주요 독립계 석유회사의 투자 동향 및 전략”,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2007.
- Amy Myers Jaffe, “Global Oil Geopolitics post-September 11: Changing Landscapes”, *Prepared for Japan Cooperation for the Middle East*, October 2002.
- Bielecki J, “Energy Security: Is the Wolf at the door”,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42, 2002.
- Chatham House Report, “Trend in Asian National Oil Company Investment Abroad”, March 2007.
- Hurst Cindy, China’s Oil Rush in Africa, The 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Global Security, 2006.
- Masahiro, Kawai,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Progress and Challeng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16, 2005.

Stephen Leeb, Donna Leeb 著, 李偉 譯, “即將來臨的能源崩潰”,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Wong John & Chee Kong Wong, *China's New Oil Development Strategy Taking Shape*, East Asian Institute Contemporary China Series - Vol. 7, 1998.

唐風, “能源的新戰爭”, 中國商業出版社,, 2008.

劉慧芳, “跨國企業對外直接投資研究”, 中國市場出版社, 2007.

戴春寧, “中國對外投資項目案例分析”, 清華大學出版社, 2009.

馮鵬程, “中國企業對外直接投資研究”, 印刷工業出版社, 2009.

吳群花, “中國石油企業海外投資的策略研究”, 對外經濟貿易大學 國際貿易學 碩士學位 論文, 2004.

石油化工, 참고 <http://baike.baidu.com/view/199721.htm>

首鋼集團, 참고 <http://baike.baidu.com/view/39418.htm>

中國電信集團, 참고 <http://www.chinatelecom.com.cn/>

華爲技術有限公司, 참고 <http://baike.baidu.com/view/14877.htm>

奇瑞汽車有限公司, 참고 <http://www.chery.cn/>

格蘭仕集團(GLANZ), 참고 <http://baike.baidu.com/view/153419.htm>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Offshore Oil Resource in China

Choong-Bae Lee* · Jin-Ho Noh**

Competitions for secure oil are intense around the world due to the limited oil reserves. The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serious as China ha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China's offshore oil development strategies to balance the supply and demand of oil and then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A surging increase of oil demand due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stagnation in domestic oil output has turned China into a net oil importer since 1993. Therefore, China has placed a significant priority on securing long-term stability of its offshore oil to cope with the rapid growing demand.

It has taken a variety of strategies to secure stable oil resource such as development of offshore oil resource, increasing the number of oil importing countries. China with the highest foreign exchange reserve of approximately \$3 trillion as of 2010, has considered to employ foreign exchange reserves while making a huge amount of investment to secure oil resource.

China has pursued several policies such as loan to oil production country for securing oil,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offshore oil development, M&A of oi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ies and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of oil importing countries.

China has promoted offensive strategies for securing oil resource rather tha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us, China should find a trade-off point for recovering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society while developing and investing renewable energy for long-term future. It will also addres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to prepare new strategies of overseas oil development.

Key Words : Oil development, China Oil Demand, Oil Trade, China Oil Supply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Ph.D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